조사항목의 정밀화를 통한 국어 음운론 연구의 방향성 탐색*

임 석 규 (원광대)

< 목 차 >

1. 서론
2. 제보자 선정의 중요성
3. 조사항목 선정의 중요성
4. 결론

국문초록

지역어 연구를 통해 국어 음운론의 본모습이 어느 정도 드러난 것이 사실이지만 아직도 그 보완의 여지는 남아 있다. 이 논문에서는 조사항목의 확대를 바탕으로 국어 음운론 연구의 정밀화를 제안하고자 한다. 단순히 특정 지역어에는 이런 음운현상이 확인된다는 식의 기술을 넘어서 형태소 경계, 단어 경계까지 조사항목을 확대하는 방식을 강조하고자 한다. 공시적 음운 현상이 논의의 대상이 될 것인바, 경음화, ㄴ 첨가, 동모음 탈락을 포함하여 몇몇 성조 현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조사항목의 확대를 확인할 것이다. 그를 통해 국어 음운론의 정밀화가 강조될 것이다.

한 지역어를 면밀하게 기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제보자의 선정이 중요

*본 논문은 2017년도 원광대학교의 교비 지원에 의해서 수행됨.
본 논문은 2017년 8월 24일 전남대학교에서 개최된 '제62회 국어문학회 전국학술대회'에서 기획 주제(현 단계 국어문학 연구의 방향과 정체성)로 발표된 내용을 보완한 것임.

www.kci.go.kr

하다. 제보자 선정의 엄격한 기준은 해당 논의의 의의와도 직결된다.

주제어: 국어 음운론, 지역어, 음운현상, 조사항목의 확대, 단어 경계

1. 서론

지역어의 정밀한 연구를 통해 국어 음운론은 그 실체를 드러내야 한다.[1] 개별 현상들이 특정 지역어를 기반으로 하지 않는다면 즉, 특정 지역어의 몇몇 토박이 화자들에게서 자료를 제대로 수집하지 못한다면 그 성과는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다.[2] 특정 지역어를 통해 특정 현상의 음운론적 원리를 파악하고 그 기제를 이끌어낼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국어 음운론의 큰 자산이 되는 것이다.

그동안 지역어에 대한 음운론적 연구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것이 사실이며 이러한 연구가 국어 음운론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 소중한 자산이 되었음도 당연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점에서는 보완의 여지가 있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 지역어를 대상으로 한 많은 음운론적 논의들이 해당 지역어에서는 이러이러한 현상이 확인된다는 식으로 서술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서 특정 음운과정을 일반화하게 되는데 자료를 보다 폭넓게 관찰할 수 있다면 보다 나은 결론이 도출될 수 있다.[3] 어떤 음운규칙은 형태소 경

1) 최명옥(1982), 최명옥(1990) 등 최명옥 교수의 여러 논의에서 이러한 주장이 피력되었다.

2) '옷#입고', '못#잊고'에서 확인되는 ㄴ 첨가 현상을 파악하면서 개별 지역어를 기반으로 하지 않고 연구자 나름의 발음 관습을 토대로 한다거나 무작위로 선택된 화자들에게서 설문조사를 통해 발음 정보를 얻는다면 그 성과물은 인정받기 어렵다. 설문조사 시에도 3대 이상 해당 지역에서 거주해 온 토박이 화자라는 정보를 철저히 지켜야 그 연구는 의의를 지닐 수 있다.

www.kci.go.kr

계를 넘어서도 적용되는 경우가 있을 텐데 — 이러한 점도 일반화에 있어 매우 중요한데 — 그동안의 지역어 연구에서는 다소 소홀히 다루어진 측면도 없지 않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고 음운론적 정밀화를 꾀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조사항목의 선정이 치밀하게 계획되어야 할 것이다.[4)]

어떤 한 지역어의 정밀한 관찰이 의외로 국어 음운론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도 있다. '가+아도→가도(去)'에서 어간의 'ㅏ'와 어미의 'ㅏ' 중 어느 모음이 탈락하는지, 중부방언을 대상으로 할 때에는 그 실마리가 제대로 찾아지지 않는다. 또한 사소하게 보이지만 특정 지역에서 확인되는 장음 '가:라', '갈:래', '가:마' 등도 국어 음운론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 기여하는 바가 클 수 있다. 특정 지역어의 정밀한 연구가 큰 의의를 지닌다는 뜻이다. 조사항목의 환경을 넓히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움라우트 현상 '어미>에미', '아비>애비' 등에 대해 알고 있다. '돋뵈기', '맛뵈기'에서의 움라우트 현상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다. 이병근(1975:40)에서 확인되는 통사론적 구성, '나를 *뵈기가 역겨워'에서의 움라우트 적용 여부는 매우 의미 있는 성과일 것이다. 관찰을 얼마나 폭넓게 하느냐, 조사항목을 어떻게 잘 꾸리느냐에 따라 성과는 판이하게 달리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본 논의에서는 조사항목의 확대를 통한 국어 음운론의 정밀화에 대해 언급해 보려 한다. 주로 공시적인 성과에 한정하되 조사항목의 선정이 미흡했다고 생각되는 몇몇 현상들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앞서 '이 지

---

3) 필자가 1990년대 후반 석사학위논문을 준비할 때만 해도 동학들에게 난제로 다가온 것이 어떻게 하면 제대로 된 조사를 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제대로 된 성과물을 낼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다. 결론은 적어도 한 달간은 그 지역에 가서 밭도 같이 매고 나무도 같이하는 등 생활 속에서 자료를 얻어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이런 작업은 아무나 할 수 없다고 생각했었다. 방언을 보는 관점이 필자와 다를 수도 있다. 필자는 제보자 선정에 최대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려 한다. 그래야 인접 지역과의 방언차도 확실히 드러낼 수 있다. 연구 목적에 따라 그 잣대는 조금씩 유동적이겠지만 필자는 우선적으로 전통적인 방언형 수집에 주력하는 편이다.

4) 이는 임석규(2007)에 제시된 내용이다. 이 발표문에는 임석규(2016), 임석규(2017)의 내용이 부분적으로 제시되어 있음도 밝힌다.

www.kci.go.kr

역어에서는 이러이러한 음운현상이 확인된다'라는 식의 논의가 많았다고 했다. 다른 지역어와의 차이를 드러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특정 음운현상을 정밀하게 기술해야 하는바, 여기에는 바로 조사항목의 선정이 연구의 성패를 결정한다고 할 수 있다. 우선적으로는 조사항목의 정밀화를 위해 제보자 선정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다시금 강조하려 한다. 제보자 선정이 부실하면 그 연구 성과는 믿을 수 없기 때문이다.

2. 제보자 선정의 중요성

전통적인 방언 조사를 위해서라면 무엇보다 제보자 선정이 중요하다. 매체가 발달된 현 시대라면 '제보자 선정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언급이 필수적이다.

① 제보자는 '3대째 이상 해당 지역에서 거주해 온 80세 이상의 토박이'를 원칙으로 한다.
② 교육을 받지 않는 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초등학교 이하의 학력은 허용한다.
③ 지역적·문화적 특수성, 즉 시장권, 통혼권 등도 확인하여야 한다.

이러한 기준은 일반적인 사항이기는 하나 다시 한 번 강조될 필요가 있다. 위 기준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그 이후 조사 및 전사는 의의가 없다. 3대 이상 살아 온 토박이가 기본 조건이다. 만약 제보자가 80세이고 3대째 그 지역에서 살아왔다면 적어도 대대로 130~140년 이상은 살아 온 셈이다. 2대째 거주해 온 제보자는 토박이라 볼 수 없다. 조부모가 타지역 출신이라면 그 영향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60대 이상으로 토박이 조건을 명시해 왔다. 60대 정도라면 표준어를 많이 경험한 연령대라고 해야 할 것이다. 80대 제보자를 찾는 일이 만만치 않다 하더라도 의미

www.kci.go.kr

있는 논의를 위해서는 제보자 선정 기준을 흔들지 말아야 한다. 또한 학력과 관련해 무학자를 찾기 어려운 경우, 초등학교 학력 이하의 제보자라도 만난다면 조사를 진행해도 큰 무리는 없어 보인다. 다만 어떠한 경우라도 한자에 어느 정도 노출된 사람이라면 제보자로서 바람직하지 않음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또 이상의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시장권, 통혼권도 고려되어야 한다. 전북의 익산 지역을 예로 든다면 익산의 좌측에 위치한 면이라 할 수 있는 용안 지역 사람들은 부여로 시장을 보러 갔었다고 한다. 통혼권도 마찬가지이다. 인접한 다른 군의 지역민과 혼인하는 경우가 종종 확인된다면 그 지역의 말은 온전한 토박이말이 되기 어려울 것이다. 또 다른 특수성도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경북의 영주에는 풍기 금계 지역(피난민 거주 지역)이 있다. ≪토정비결≫에서의 십승지(十勝地)에 해당하는 곳이다. 이 지역이나 그 가까운 면 단위에서 제보자를 구해서도 안 된다.

이러한 기준이 여러 번 강조되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없지 않다. 표준어에서 서울말이라고 하는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하면 된다. 1930년대처럼 중인들이 주로 거주했다는 청계천 부근, 그 지역에서 아무리 오래 살았다 하더라도 온전한 서울말로 인정받지 못한 때도 있었다. 표준어 사정과 같은 그 정도의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지는 않더라도 제보자 선정 과정에서 특정 기준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면 그 조사는 의미가 없다. 아니 조사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전북 순창과 정읍에서 '듣-(聽)'에 대해 '듣고, 듣어, 듣으면'과 같이 규칙 패러다임을 보이는 제보자를 만난 적이 있다. 제보자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다.[5] 방언을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 간에도 갈등이 유발될 수 있다. 제보자 선정부터 치밀하게 전개되어야 그 갈등이 무마될 수 있는 것이다. 제보자 조건을 세세히 여러 번 확인해야 하는 것이다.

---

5) 현재 순창 토박이 화자는 그 말이 자연스럽다고 한다. 60세 제보자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20세 제보자가 예전에 접해 보았다고 하니 놀라울 따름이다. 소창진평의 자료,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의 ≪한국방언자료집≫에는 이들 형태가 확인되지 않는다.

www.kci.go.kr

3. 조사항목 선정의 중요성

논의에 보다 쉽게 접근하기 위해 익숙한 자료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른바 고모음화 현상이다. (1)과 달리 (2)는 단어 경계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시적인 현상이다.

(1) 가. 삼촌>삼춘, 부조>부주, 사돈>사둔, 산소>산수(墓), 청소>청수(掃)
나. 코도>코두, 어디로>어디루, 물고>물구, 돌리도록>돌리두룩[6]
다. 돈:>둔:(錢), 골:목>굴:묵(골목)
cf. 꼭꼭>*꼭꾹, 족족>*족쭉, 똑똑>*똑뚝

(2) 말#좀#해→말줌해, 하는가#보다→하는가부다
cf. 이#몸+이→*이뭄이, 애기#몸+이→*애기뭄이, 이사#또#해→*이사뚜해

'삼촌>삼춘', '부조>부주'에서 나타나는 'ㅗ>ㅜ' 고모음화 현상은 중부지방에서 쉽게 접할 수 있다. 조사항목이 확대된다면 (1나)와 같이 단어 내부 환경 이외로 조사항목이 확대될 수 있다. 바로 '코두, 어디루, 물구, 돌리두룩'과 같은 예에서 고모음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고모음화는 비어두에서 확인된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1다)의 '돈:', '굴:묵'과 같은 예에서도 고모음화는 확인된다. 보다 보완된 성과라고 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2)에서의 '말줌해', '하는가부다'와 같이 기식군 단위에서도 고모음화가 확인된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조사항목의 선정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새삼 느낄 수 있다.[7] 그런데 '*이뭄이', '*애기뭄이', '*이사뚜해'와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기식군이 형성되더라도 고모음화는 나타나지 않는다. 보다 정밀한 일반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아울러 (1)의 '꼭꼭 숨어라', '하는 족족', '똑똑(하다)' 등에서도 고모음화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

6) '코두', '어디루', '물구', '돌리두룩'으로 발화하는 사람은 그 어휘부에 조사 및 어미가 '-도', '-로', '-고', '-도록'으로 저장된 것이 아니라 '-두', '-루', '-구', '-두룩'으로 저장된 것이다. 그러니 공시적인 고모음화가 아니다.

7) '좀 먹자', '시도해 보자'에서 '좀'과 '보-'를 기저형으로 설정할 수 있다.

www.kci.go.kr

다면 여러 가지 보완적 논의가 필요하다 하겠다.

아래에서는 조사항목의 확대가 필요한 몇몇 현상들을 검토하되, 경계에서 나타나는 현상, 이른바 공시적 현상들에 주목하기로 한다. 이를 통해 항목 선정이 중요함을 강조할 것이다.

3.1. 음운현상과 조사항목

3.1.1. 경음화

수관형사와 후행 분류사가 통합하는 경우 왜 경음화가 일어날 수 있는지 검토해 보자. 물론 조사항목이 확대되어야 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다음을 자연스럽게 발화해 보자.[8)]

(2)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여덟 개, 아홉 개, 열 개

어떤 경우에는 경음화가 일어나고 어떤 경우에는 경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것을 어떻게 일반화할 것인가? '여섯 개, 일곱 개 아홉 개'는 수관형사의 종성이 폐쇄음이기에 자동적으로 후행 요소의 첫 자음은 경음으로 변동된다. 문제는 '여덟 개'에서의 경음화이다. ㅂ 때문에 경음화가 일어난 것인가?[9)] '열 개'를 보면 ㅂ 때문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일부 연구자들이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중세국어의 ㅎ 말음 어간 '엷'을 가져오기도 한다. 즉 '열 개'는 중세국어의 '엷' 때문에 경음화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여덟 개'는 폐쇄음 뒤의 경음화라고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현대 국어 화자들은 '엷'이라는 중세 국어의 어형을 모른다. 중세 국어의 어

8) 경음화 부분은 임석규(2007), 임석규(2013)의 내용을 표현을 달리하여 서술한 것이다.

9) 물론 서남방언에서는 단독형의 발화가 '여덥'이므로 '여덥깨'는 폐쇄음 뒤의 경음화인 셈이다.

www.kci.go.kr

형을 가져와서 설명하는 방식은 공시적인 연구로는 적당치 않다. 그러면 수관형사 뒤에 분류사의 초성이 경음으로 변한다고 일반화해야 한다. 음운론에서 비음운론적 제약이 들어오는 것은 일단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좀 더 많은 자료를 통해서 그 주장에 대한 신빙성을 확보해야 한다. 일단 '여덟하고[여더라고]', '아홉하고[아호파고]'에서 전자는 격음화 과정을 겪지 않으니 난감해진다. '여덟'의 단독형의 발화도 '여덜'이다. 이 정도의 사정이라면 '여덟'에서 ㅂ이 경음화를 유발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렇다고 ㄹ이 경음화를 일으킬 수 있느냐? 그 또한 만만치 않다. 그래도 음운론적으로는 그 방법밖에 없다. '여덟'에서 ㄹ이 경음화를 야기한 것이라면 '열 개'에서도 ㄹ이 그 역할을 떠안은 것이다. 도대체 ㄹ의 어떤 특성 때문일까? 일단 여기에서 자료를 더 확보해 보고자 한다.

(3) 열한 개, …, 열 아홉 개, 스무 개, 서른 개, 마흔 개, 쉰 개, 예순 개, 일흔 개, 여든 개, 아흔 개, 백 개, 구백 개, 천 개, 만 개, 십만 개, 백만 개, 천만 개, 억 개

여기에서 연구자를 난감하게 하는 것이 하나 있다. 바로 '스물'이다. '스물'은 ㄹ로 끝나는데 이것이 바로 '스물 개'로 나타나지 않고 ㄹ이 탈락된 형태 '스무 개'로 나타난다. 그런데 부산, 경남 화자들에게서 '스물깨(20個)', '스물뻔(20番)', '스물짱(20張)'이라는 발화를 듣게 된다.[10] 그러면 공시적으로 어떻게 일반화를 할 수 있을까? 수관형사와 분류사의 통합에서 확인되는 경음화는 앞서 살펴본 '여덟[여덜], 여덟하고[여더라고, *여덜파고]'를 고려하면 고유어 계열 수관형사의 종성이 ㄹ일 때 가능한 것이라 기술할 수 있다. 다시 ㄹ로 돌아온다. 여기에서는 ㄹ의 자질이 부각되어야 할 텐데 아직 묘수는

10) '스물'도 중세국어에서는 ㅎ 말음을 가진 어간(스믛)인바, '스물깨', '스물뻔'과 같은 발화는 중세국어 어형 '스믈 살', '스믈 가지'와 대응된다. 다른 것은 차치하고라도 경남방언에서 고형을 갖고 있는 대표적인 것으로 명사문을 들 수 있다. 경남의 몇몇 지역에서 '비싼 기 이것가?(비싼 것이 이것인가?)'라는 발화를 참고할 수 있다.

www.kci.go.kr

없어 보인다.

여기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열 개'까지만 가지고 일반화하려는 노력보다는 좀 더 항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래도 여의치 않다면 다른 지역어에서는 어떤 발화가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그런데 실제 음운론 연구에서는 '스물'까지 조사하지 않기도 한다. 일반화에 있어서는 보다 많은 자료, 보다 많은 지역어에서의 정밀한 자료 관찰이 필요하다 하겠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어 음운론에서는 ㄹ이 난제이다. ㄹ 관련 경음화 현상들을 아래에서 살펴보자. 다음은 경북의 영주 지역어[11] 자료이다.

(4) 내#말(語)+도→내말또, 내#말+대로→내말때로
내#말+조차→내말쪼차

(4)를 통해서 곡용어간말 ㄹ 뒤 ㄷ, ㅈ은 경음화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ㄹ 뒤 설정성 자음([+cor]) 즉, ㄷ, ㅅ, ㅈ이 경음화된다고 하려니 ㅅ으로 시작하는 어미[조사]가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 해당 지역어에서 ㄹ로 시작하는 어미[조사] 형태가 없다고 하면 다음 자료에서 힌트를 얻는 것도 중요하다.

(5) 예를뜰면(예를#들면), 불똘리고(불#돌리고), 잘뜰어(잘#들어), 아들뚤(아들#둘)
불쌀리고(불#살리고), 물씰꼬(물#싣고), 아들쎗(아들#셋)
물쫗다(물#좋다), 불쫗다(불#좋다), 큰아들짜리(큰아들#자리)
cf. *물뻐려(물#버려), *알꿁어(알#굵어)

(5)는 단어 경계에서 확인되는 경음화의 예이다. 이를 통해서 ㄹ 뒤 ㄷ, ㅅ, ㅈ이 경음으로 변동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12] '설정성 자음'이 경음화된다고 일반화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것이다. 이 환경에서의 경음화 환경은

11) 지역어와 방언은 의미하는 바가 다르다. 지역어는 방언권을 전제하지 않는 개념이다. 방언구획론이 이루어지면 자동적으로 북서부방언, 남서부방언 등의 술어가 가능할 것이다.

12) '아들들도→아들뜰또', '아들#둘도→아들뚤또'과 같은 예도 참고할 수 있다.

www.kci.go.kr

한자어에서도 확인된다.

(6) 결단→결딴, 결사→결싸, 결정→결쩡
cf. 결국→*결꾹, 결박→*결빡

ㄹ 뒤 ㅂ, ㄱ과 달리 ㄹ 뒤 ㄷ, ㅅ, ㅈ이 경음화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는 '날씨', '날짜' 등의 둘째 음절을 경음으로 쓴다. 사전 등재소 중 고유어에서 ㄹ 뒤 평음은 거의 없다. 있다고 하더라도 동식물명 정도에서 확인될 뿐이다. 여기에서 '할지라도', '할수록' 등의 '-ㄹ지라도', '-ㄹ수록'의 표기가 문제된다고 하겠다.[13]

곡용형만을 대상으로 한다면 일반화가 쉽지 않을 텐데 환경을 넓혀서 조사하게 되면 ㄹ 뒤 설정성 자음이라는 보다 확실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ㄹ의 어떤 자질이 경음화를 유발하는지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으니 안타까울 뿐이다.

3.1.2. 곡용에서의 활음화

경북의 동해안방언에서는 다음과 같은 자료들을 쉽게 접할 수 있다. 이른바 곡용에서의 활음화 현상이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도 조사항목의 보완을 통해 정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7) 시(市)+에→*세
도시(都市)+에→도세

고모음화와 마찬가지로 비어두에서 활음화가 확인된다. 물론 '시'가 상승조(음장방언에서의 장음)임에도 불구하고 고모음화와 달리 활음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자료를 보완하기로 하자.

13) 물론 동식물명도 ㄹ 뒤 경음으로 표기를 수정해야 할지 모른다.

www.kci.go.kr

(8) 가. 꼭대게(꼭대기+에)
새다레(사다리+에)
머레(머리+에)
다레(다리+에)
나. 열한 세 보자(열한#시에#보자)
다. 내가 보게는(보기+에는)

(8가)야말로 전형적인 활음화 현상이다.[14] (8나)는 '열한시'가 하나의 기식군이 되면서 비어두라는 조건이 만족되었기에 활음화가 적용된 것이다. 이상은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격 어미[조사],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격 어미[조사]가 결합된 경우이다. (8다)는 시간이나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격이 아님에도 활음화 현상이 일어난 것이다.[15] 조사항목이 다소 확대된 경우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자료들을 통해서는 일반화를 제대로 할 수 없다. 유정명사에 통합하는 경우에도 활음화가 나타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9) 돼지+에게
아부지+에게, 아기+에게

그런데 이들은 문어에서나 접할 수 있을 뿐 일상생활에서는 특히 노년층에게서는 발화되기 어렵다. 유정명사 뒤에 통합하는 어미[조사]는 '-한테'이기 때문이다. '-한테'가 통합된다면 활음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 되지 못한다. 이들 자료를 통해 유정명사와의 결합에서는 활음화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 차라리 '돼지에다가 소에다가 잔뜩 길러'와 같이 열거하는 상황을 조사해 보는 것이 타당할지 모른다.

---

14) 표면적으로는 어간 말음 'ㅣ'가 탈락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함북방언 자료에서 '꼭대기+에→꼭대계'가 확인된다(곽충구 1994:147). 그러면 곡용에서의 활음화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한편 '금세'와 '그러게'는 활음화를 겪은 것이지만 (8)에 제시된 예들과 달리 표준어로 인정된 것임을 밝혀 둔다(아주대 이상신 교수의 조언에 의함).

15) 김유정 소설에서도 확인된다.

www.kci.go.kr

(10) 가. 머레다가 다레다가 온통 흙을 묻혀 댕긴다.
나. 가매솥에 머레다가 다레다가 잔뜩 집어 넣고 푹 삶았어.

두 경우 모두 열거하는 상황처럼 보이나 (10가)는 사실, 처격 어미[조사]와 통합된 것이다. 순수한 열거 상황은 (10나)인 셈이다. 이때도 활음화는 확인된다. 이는 (9)와 달리 구어에서도 확인되는 자료이다. 물론 이 상황도 '머리하고 다리하고'라는 발화가 일반적이므로 (10나)에 대해서도 보다 정밀한 조사가 요구된다 하겠다.

(11) 인민군이 와서 돼지에 소에 다 잡아먹었다.
거지에다가 문디에다가 잔뜩 모였어.

(11)에서는 보다 정밀한 조사가 진행되어야 하겠지만 활음화의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조사하기 만만치 않아서 결론을 명확하게 밝힐 수는 없지만 일단 몇몇 제보자는 활음화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 유정명사와 무정명사의 차이는 아닌 듯하다. 유정명사에 '-에게'가 통합하는 경우는 그 빈도가 매우 낮기 때문에 활음화 규칙을 억지로 적용하여 공시적 규칙으로 파악하는 것은 아무래도 타당치 않아 보인다. 어쩌면 (11)에 제시된 예도 같은 식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정밀한 음운론 연구를 위해서는 고려해 볼 가치가 있다.

3.1.3. ㄴ 첨가

음운론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 하나는 아마 ㄴ 첨가일 것이다.[16]

16) ㄴ 첨가뿐만 아니라 경음화 관련해서도 난제는 많다. '호남찌방, 호남지역, 다른지역'으로 발화하던 사람들이 이제 '호남찌방, 호남찌역, 다른지역'으로 발화하기도 한다. 그러다 보니 갈피를 못 잡는 듯하다. 드디어 일기예보하는 아나운서들이 '호남찌방, 호남찌역, 다른찌역'이라고 한다. 이와 관련된 많은 조사항목이 확보될 필요가 있다. 특히 전북 전주, 정읍, 익산, 김제 등에서는 '노랑쌕', '석사꽈정', '함열리싸람' 등이 매우 자연스럽게 발화된다. 많은 조사항목을 확보하면 방

www.kci.go.kr

(12)와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없다. 후행 요소가 어휘형태소에 준해야 하며, 그 또한 일단 i 또는 y로 시작해야 한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ㄴ 첨가의 환경이다.

(12) 한#일→한닐
올#여자→올녀자→올려자
cf, 집일, 군입, 물약, 갈잎

그런데 지역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자료에서는 ㄴ 첨가가 상당히 수의적이다.

(13) 옷#입어, 못#잊어

수의적 색채가 짙은 만큼 다음과 같은 여러 항목이 정밀하게 조사되기를 바란다.

(14) 옷입어, 옷입고, 옷입는다, 새옷입고, 새옷입어, 헌옷입고, 헌옷입어
못잊어, 못잊어도, 못잊고, 못잊을, 못잊는, 못잊는다
cf. 낯익은, 낯익어, 낯익지[17]

'입-', '잊-'의 패러다임을 가급적 많이 가져와서 조사하면 보다 정밀한 논의로 발전할 것이다. 수의적 경향이 강하므로 어떤 활용형에서 ㄴ 첨가가 우세한지도 밝혀줄 필요가 있다.

우리는 앞에서 일반적으로 ㄴ이 첨가되는 환경으로 후행 성분이 어휘형태소라고 한 바가 있다. 물론 '영업용', '고급유' 등과 같이 공시적 환경으로 볼 수 없는 예들에서 ㄴ이 첨가되기도 한다. 이때의 후행 성분은 어휘형태소가

사의 중심지에 대한 견해도 피력할 수 있을 듯하다.

17) 지역어에 따라 '낯익-'은 '입-', '잊-' 등에서와 같이 모든 어미가 통합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주의할 필요가 있다.

www.kci.go.kr

아니다. 곡용어미[조사]가 통합된 '이층+요'에서도 지역에 따라 ㄴ이 첨가되기도 하니, 환경을 넓혀 본다면 어휘형태소라는 조건도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ㄴ 첨가와 관련된 방사의 중심지도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3.1.4. 동모음 탈락

이른바 동모음이 탈락하는 경우, 어간말모음이 탈락하는지 어미초모음이 탈락하는지는 논자에 따라 의견이 엇갈린다.[18] 다만 최근에는 어간말모음이 탈락한다고 보는 입장이 우세한 듯하다.[19]

(15) 가고, 가니, 가도(去)

활용형 '가도←가+아도'에서 어간말모음이 탈락하는지 어미초모음이 탈락하는지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특히 중부방언인 경우에는 더 이상 논의를 이어가기 어렵다. 여기에서 성조방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좋을 것이다.

(16) 가´고, 가´니, 가도

높낮이 측면에서 경북방언 자료는 어느 모음이 탈락했는지를 잘 보여준다. 일견 확연히 어간의 모음이 탈락했음을 확인할 수 있어 보인다. 사실은 여기에도 좀 더 정밀한 논의가 필요하다. '가-', '나-', '보-', '주-' 등은 중세국어에서 '후의적 성조형(김완진 1977)'이라 불리는 것이다. '가-(去)'는 이 부류를 대표하는 전형적인 용언이다. 그 활용형을 아래에 제시하기로 한다.

(17) 가. 가´고, 가´먼, 가´이, 가´이까

18) 여기에서는 'ㅏ' 모음의 탈락만을 다루기로 한다. '서+어도'의 경우 또한 같은 논지로 이해하면 될 것이다.

19) 이하의 내용은 임석규(2002), 임석규(2007)에서 언급된 바 있다.

www.kci.go.kr

나. 가시고, 가는데, 간다, 가도, 가서, 갔다
다. 가:라, 갈:래, 갈:라이껴, 갈:라면, 가:마

어미에 따라 어간에 해당하는 음절 '가'의 성조는 세 가지로 달리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고', '-(으)이(까)', '-(으)면' 등이 통합될 경우에는 음절 '가'의 성조는 HL 패턴의 H로 나타나고, '-시-', '-아(X)[20]'가 통합할 때에는 HH 패턴의 H로 나타난다.[21] '-아라', '-(으)ㄹ래', '-(으)ㄹ라이껴', '-(으)ㄹ라면', '-(으)마' 등이 통합할 때에는 R(또는 복합조, 음장방언의 장음에 대당)로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17)에 제시된 '가´고, 가´니, 가도'에서 '가도'에 악센트 표시가 없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다. 그러면 '가+아도'에서 어간말모음이 탈락한 것인지 어미초모음이 탈락한 것인지는 원점으로 돌아온다. 다른 예를 찾아 나설 필요가 있다. 이들에 부정부사 '안'을 붙여 보면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다.

(18) 안가´고, 안가´니, 안´가도

부정부사 '안'의 성조는 후행성분의 표면성조에 따라 고조와 저조로 교체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간다'에 '안'을 결합시키면 어떻게 될까? '안´가도'를 고려한다면 당연히 '안´간다'가 예상된다. '안´간다'로 나타나지 않고 '안간´다'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다. 물론 방언에 따라 '앵´간다'로 나타나기도 한다. '안간´다'로 나타나는 지역이 있어서 다행일 뿐이다. '간다'는 모음이 탈락된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탈락되기 전 모음의 성조가 그대로 실현되는 것이다. 반면 '안´가도'로 나타나는 것은 어간말모음

20) 활용 어간과 통합하는 어미 '-아(X)'에는 연결어미 '-아도, -아서, -아야'와 종결어미 '-아', 과거시제 선어말어미 '-았-', 명령형 어미 '-아라' 등이 있다. 아울러 필자는 매개모음어미의 기저형은 어간의 환경에 따라 '-으X'와 '-X'가 선택된다는 관점에 서 있음을 밝힌다.

21) 편의상 악센트 표시는 생략한다. 아울러 장음은 성조방언에서는 잉여적인 것이지만 중부방언과의 대비를 위해 ':'로 표시한다.

www.kci.go.kr

이 탈락했다는 근거가 될 수 있다.[22]

중부방언 자료를 통해 무언가 확증을 얻을 수 없을 때 다른 지역어에서 그 실체적 증거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 어떤 작업보다도 중요한 것이다. 여기에서 지역어의 정밀한 연구가 다시금 요청된다고 하겠다.

3.2. 기저형 설정과 조사항목

3.2.1. ㄷ 변칙 동사의 기저형

ㄷ 변칙동사는 방언에 따라 단일기저형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19) 가. 걷꼬, 걷지, 걷는다, 걸어
나. 걸꼬, 걸찌, 걸는다, 걸어

(19가)는 소위 말하는 ㄷ 변칙동사의 유형이다. (19나)에서는 기저형을 '걿-'로 설정할 수 있는 자료가 확인된다. 전국적인 분포가 넓게 확인되는 '실꼬/실코, 실찌, 실는다, 실어'와 같은 유형이다. 이 경우와 관련하여 ㄷ 변칙동사를 빠짐없이 조사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묻다', '걷다', '싣다'뿐만 아니라 '듣다', '깨닫다', '붇다', '눋다' 등등이 모두 조사된다면 논의도 깊어질 것이다. ≪한국방언자료집≫을 보면 이들이 경북 북부 지역은 물론 전남, 전북 지역에서도 단일기저형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그것이 일률적이지 않고 단어마다 다르다. 전국 단위 방언 조사에서야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다 하더라도 개별 지역어 연구에서는 이들이 면밀히 조사되어야 한다. 그래야 국어사 내지 방언사적 논의도 정밀해진다.

22) 부사 '안' 대신 '너무'를 통합해도 같은 성조패턴을 확인할 수 있다. '너무간´다', '너무´가도'를 참고할 수 있다.

www.kci.go.kr

3.2.2. 패러다임 '주-', '두-', '누-'에서의 기저형

이 절에서는 'ㅜ' 말음 어간의 음운론적 양상을 검토하기로 한다. 중부방언에서 동사 '주-(與)'는 '주고, 주니, 줘도'와 같은 패러다임을 보인다. '두-(置)', '누-(尿)'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꾸-(借)'와 '쑤-(粥)'는 지역어에 따라 '주-, 두-, 누-'와 패턴을 달리하기도 한다. 동남방언 자료를 보도록 하자.

(20)은 '주-(與)', '두-(置)', '누-(尿)'와 동일한 패턴을 보이는 용언이 있는지 검토한 후 지역어별로 같은 패턴을 보이는 용언들을 나열한 것이다.[23]

(20) 가. 청송 지역어: 주-, 두, 누- ; 꾸-(借), 수-(粥)
나. 상주 지역어: 주-, 두-, 누- ; 수-
다. 영주 지역어: 주-, 두-, 누-

(20)의 세 지역어에서 '주-, 두-, 누-'는 모두 포함되어 있다. 이 세 용언은 같은 패턴을 보인다는 것이다. 청송 지역어의 경우, 모음어미와의 통합형은 '조도, 도도, 노도, 꼬도, 소도'이며 다른 어미와의 통합형은 '주고/주먼, 두고/두먼, 누고/누먼, 꾸고/꾸먼, 수고/수먼'이다. '꾸-', '수-' 모두가 '주-, 두-, 누-' 패턴에 편입된 것이다. 상주 지역어에서는 '수고, 수만, 소도(粥)'와 같이 발화되므로 '수-'만이 '주-, 두-, 누-' 패턴에 편입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꺼도/*꼬도 借). 영주 지역어에서는 '주-, 두-, 누-' 외에 어떤 용언도 편입을 허용하지 않는다(꺼도/*꼬도 借, 써도/*쏘도 粥).[24]

'주-, 두-, 누-' 세 용언만을 대상으로 하였을 때 각각의 패러다임이 다른 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없다는 것도 특이하다 하겠다. 이것을 통해 바로 '가-', '주-'류 용언[어미에 따라서 어간의 기저성조가 결정되는 이른바 후의적

23) 이하의 내용은 임석규(2017)에서 언급된 바 있다.
24) 이와 관련해 임석규(2017)에서는 복수기저형 설정을 다소 비판적으로 바라보았다. 일부 용언에 대해 복수기저형을 설정하는 것은 화자의 언어능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관련 패러다임의 강한 압박으로 특정 용언의 패러다임이 안정적일 수 있음을 언급하였다.

www.kci.go.kr

성조형(김완진 1977)]의 위력을 확인하게 된다. '주-, 두-, 누-'와 달리 '꾸-', '쑤/수-'는 '가-', '주-'류 용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역어에 따라서는 기저형 설정 시 '주-, 두-, 누-'는 항상 같은 부류로 묶일 수 있고 그 외 '꾸-', '쑤-' 등은 다른 부류로 묶일 수 있다는 것이다.

사정이 이러하므로 한 지역어를 체계적으로 기술할 때, '주-', '두-', '누-'를 한 패턴으로 생각하고 '꾸-', '쑤-' 활용형도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3.2.3. 어미의 기저성조

동남방언의 성조를 기술함에 있어 2음절 이상의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이하 자음어미라 칭함)'는 매우 중요한 음운론 환경이다.[25] 영주 지역어 자료를 활용한다.

(21) 가. 말´이, 말´은, 말´만(馬)
나. 말맹´큼(도), 말처´럼(도), 말매´둥, 말한´테(馬)

위에서 '말'의 표면성조는 (21가)에서는 고조, (21나)에서는 저조로 나타난다. 여기에서 (21나)와 같은 저조로의 교체를 설명할 때 후행하는 어미에 주목한다. 바로 2음절 이상의 자음어미이다. 즉 2음절 이상의 자음어미가 결합하면 고조가 저조로 변동된다는 규칙을 설정한다는 것이다. 이는 바로 어미에는 고유한 성조, 즉 기저성조가 없다는 관점이다. 어미에 기저성조를 부여하는 관점이 있고 어미에 기저성조를 부여하지 않는 관점이 있다. 어미에 기저성조를 부여하지 않는 관점에 서는 경우, 바로 2음절 이상의 자음어미가 통합할 때는 어간의 성조가 저조로 변동한다고 파악하는 것이다.

그런데 '-보다(도)'는 경북북부지역에서는 '-보´다(도)'로 실현되지 않는다. '말보´다도'로 실현되면 2음절 이상의 자음어미라는 조건은 여전히 유효하다.

25) 이하의 내용은 임석규(2007)의 논의 방향과 같다.

www.kci.go.kr

그런데 실제 발화는 '말보다´도~말보담´도~말보다^도~말보담^도(하강조)'로 나타난다.

조사항목의 확대라는 관점에서 3음절 어간을 예로 들어보자. '콩지름만´큼', '콩지름처´럼'과 같이 나타나는 것은 문제가 없다. 그런데 '-보다´(도)'에 이르게 되면 '콩지름보´다도'라 예상되지만 실제 언어자료는 그렇지 않다. '콩지름보다´도'로 실현된다. 그러니 '-보다(도)'의 기저성조를 '-보다´도'로 설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 다른 2음절 자음어미 '-치고'가 있다. '콩지름치´고'로 실현되면 좋을 텐데 실제로는 '콩지름´치고'로 실현된다. 이 또한 '-치고'의 기저성조를 따로 설정할 수밖에 없는 근거가 된다. 여기에 이르게 되면 2음절 자음 어미라는 환경은 적절한 일반화가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러니 곡용형을 조사할 때 '-이', '-도', '-만'만을 통합해서는 안 된다. '-처럼', '-만큼'을 넘어서 '-보다', '-치고' 등을 모두 조사해야 합당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다.[26]

여기에서 강조해야 할 것이 있다. 특정 지역에서는 2음절 이상의 자음 어미가 유의미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지역어 연구에서조차 이설이 존재한다면 그 지역어를 벗어나 다른 지역어에서 현상을 가져오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관점을 확립해 나가야 한다.

3.3. 재구조화와 조사항목

3.3.1. '-이(X)'의 빈도수와 재구조화

'주룸살>주룸사리'는 이른바 어간이 확대된 재구조화의 예이다. 이 경우 재구조화[27] 요인으로 주격 조사[어미]의 빈도가 높으니 이를 기준형으로 하

---

26) 활용 어간에서도 2음절 이상의 자음어미는 의미가 없다. '먹´고, 먹´지, 먹´어/먹는´, 먹던´'에서 후자는 2음절 이상의 자음어미가 통합된 것도 아닌데도 '먹'의 표면성조는 저조로 나타난다. 이 경우 역시 '-는'과 '-던'의 기저성조를 고조로 설정해야 하는 근거가 된다.

27) 서론에서 공시적 음운 현상을 다룬다고 하였다. 재구조화는 통시적인 것이지만 현 시대의 패러다임을 통해서 재구조화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3장에 포함

www.kci.go.kr

여 재구조화된다고 말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를 부정하기 위한 논의도 더러 확인된다. 실제 코퍼스 자료에서는 처격 결합형의 빈도가 가장 높다고 한다. 그런데 코퍼스 자료는 문어가 대부분이다. 구어 자료가 포함되었다고는 하나 드라마 대본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니 아직 코퍼스를 통한 연구는 음운론에서는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밖에 없다. 본격적인 음운론 연구에서는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음운론 연구에서는 '-이(X)'가 중요하다. '-이(X)'는 두음이 '이'인 조사[어미]이다. 주격 조사[어미]도 두음이 '이'이지만 서술격 조사[어미]도 두음이 '이'이다. 서술격 조사[어미]는 활용도 한다. 그러니 그 빈도는 엄청나다. 주격 조사[어미]의 빈도수가 처격 조사[어미]에 밀릴 수는 있다. 주어가 잘 생략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X)' 환경임에도 서술격 조사[어미]는 빠져 있다는 것이다. 서술격 조사의 빈도수를 알아보기 위해 서술격 조사[어미]의 패러다임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주지하듯이 서술격 조사[어미]는 활용을 한다. '이고, 이니, 이면, 이라서, 이구나, 이다'가 그것이다. 이것만 해도 자료가 엄청나다. 그런데 '이시고, 이시니, 이시면, 이셔서, 이시구나, 이시다' 등과 같이 선어말어미 '시'가 결합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선어말어미가 '-시-'뿐인가. '이었고', '이었으니', '이었으면' 등에서 '-었-'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시-'와 '-었-'이 포함된 '이셨고', '이셨으니', '이셨으면' 등 실로 엄청난 자료가 확인된다. 또 '이겠고', '이겠으니'와 같이 선어말어미 '-겠-'도 결합되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많은 형태를 빼버리고 처격 조사[어미]의 빈도가 높다고 말하면 그 논문의 질은 어떻게 될 것인가? 실제 조사에서 '-이', '-도', '-만', '-에'뿐만 아니라 '-이(X)' 전반에 걸친 조사가 면밀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로 위에서 언급한 서술격 조사[어미] '-이(X)' 패러다임을 그 하위패러다임과 함께 아래에 제시하기로 한다.

(22) 가. 이고, 이니, 이면, 이라서, 이구나, 이다

시켜 논의한다.

www.kci.go.kr

나. 이시고, 이시니, 이시면, 이셔서, 이시구나, 이시다
다. 이었고, 이었으니, 이었으면, 이었구나, 이었다
라. 이셨고, 이셨으니, 이셨으면, 이셨구나, 이셨다
마. 이겠고, 이겠으니, 이겠구나, 이겠다

3.3.2. 관형사형 어미와의 통합형과 재구조화

(23가)는 처격 조사[어미]와의 통합형이 보수적임을 잘 보여주는 예이다.[28]

(23) 가. 바시, 바슬, 바슨, 바테(田)
나. 바시, 바슬, 바슨, 바세

중부방언에서는 (23가)와 같은 패러다임, '바시, 바슬, 바슨, 바테'로 발화되는 경우가 많다. 더 나아가서 (23나)와 같은 패러다임, '바시, 바슬, 바슨, 바세'로 단일화를 겪기도 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처격 조사[어미]와의 통합형이 보수적인 경향을 띠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전자와 같은 패러다임으로 발화하는 화자를 아직도 꽤 접할 수 있는 것이다. '지베 간다'라고 발화하지 않고 '지비 간다'로 발화하는 것도 그 경향성을 잘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15세기 형태가 '지븨'이기 때문이다.

곡용에서는 처격 조사[어미]와의 통합형이 보수성을 띠는 데 반해, 활용에서는 관형사형 어미 '-는'과의 통합형 및 '-는다/ㄴ다'와의 통합형이 보수성을 띤다고 할 수 있겠다.

(24) 기:고, 기:니까, 기는, 긴다(伏)
깨:고, 깨:니까, 깨는, 깬다(破)

(24)에 제시된 '기:고, 기:니까, 기는, 긴다'와 같은 발화라든가, '깨:고, 깨:

28) 이하의 내용은 임석규(2017)을 보충하여 서술한 것이다.

www.kci.go.kr

니까, 깨는, 깬다'와 같은 발화가 그 근거가 될 수 있다. '기:고, 기:니까'는 재구조화되어 장음(성조방언이라면 상승조)으로 실현되나 관형사형 어미와 현재 직설법 어미가 통합하는 경우에는 이전 시기의 활용형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29] 이를 통해 기저형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단순한 수의성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재구조화가 진행되는 과정에 있다고 보는 편이 타당할 것이다.

처격 조사[어미]와의 통합형이 보수적이라는 것은 장소를 뜻하는 명사에 적용되는 것이다. '먹는', '먹는다', '먹는구나', '먹는데' 등을 통해 볼 때, 활용형에서의 보수성은 '-는(-)' 개재 형태가 다른 형태에 비해 보다 많이 나타나는 것이 그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 바로 빈도수가 변화에 알게 모르게 관여한다고 볼 수 있겠다.

이 또한 조사항목의 확대에서 얻은 결론일 수 있다. 활용형의 조사에서 '-고, -(으)면, -어/아'를 위주로 조사해서는 위와 같은 관찰을 할 수 없다. 활용형의 조사에서는 관형사형 어미, 현재 직설법 어미의 통합이 조사항목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듯하다.

4. 결론

이상에서 조사항목의 선정과 그 확대의 의의를 몇몇 음운 현상과 관련지어 논의하였다.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여러 지역어의 면밀한 연구를 통해 국어 음운론의 실체는 드러나야 한다. 특정 지역어의 음운 현상을 면밀히 기술하면 그것이 다른 연구자의 실체적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 이러한 성과를 위해서는 조사항목을 가능한 한 많이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형태소 경계는 물론 단어 경계에 이르기까지 정밀한 관찰이 필요할 것이다.

제보자 선정과 관련한 엄격한 기준은 연구목적과 맞닿아 있다. 전통 방언

29) 이는 성조방언뿐 아니라 음장방언의 재구조화 판별에도 도움이 된다.

www.kci.go.kr

형을 수집하고 그에 대한 논의를 펼칠 때에는 제보자의 선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좋은 제보자를 만나 다양한 항목을 꾸준히 또 재차 확인하는 방식이 요구된다 하겠다.

www.kci.go.kr

참고문헌

강희숙(2002),「≪천변풍경≫의 음운론」,『국어학』40, pp.171-194.

곽충구(1994),「계합 내에서의 단일화에 의한 어간 재구조화」,『남천박갑수선생화갑기념논문집』,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pp.549-586.

곽충구(1994),『함북 육진방언의 음운론』, 태학사.

김봉국(2002),「강원도 남부지역방언의 음운론」,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김성규(1988),「비자동적 교체의 공시적 기술」,『관악어문연구』13, pp.25-44.

김성규(1994),「중세국어의 성조변화에 대한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김성규·정승철(2005),『소리와 발음』,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김세환(2005),「청송 지역어의 음운론적 연구」,『국어연구』180, 국어연구회.

김아름(2008),「국어의 고모음화 현상 연구」, 아주대 석사학위논문.

김완진(1977),『중세국어성조의 연구』, 탑출판사.

김 현(2001),「활용형의 재분석에 의한 용언 어간 재구조화」,『국어학』37, pp.85-113.

박선우(2006),「국어의 유추적 음운현상에 대한 연구」,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박숙희(2005),「경북 동해안 방언의 성조 연구」, 충남대 박사학위논문.

서상규(2014),『한국어 기본어휘 의미빈도 사전』, 한국문화사.

이기문(1972),『국어사개설』, 탑출판사.

이병근(1975),「음운규칙과 비음운론적 제약」,『국어학』3, 국어학회, pp.17-44.

임석규(2002),「음운탈락과 관련된 몇 문제」,『국어학』40, pp.113-138.

임석규(2004),「재분석에 의한 재구조화와 활용 패러다임」,『형태론』6-1, 박이정, pp.1-23.

임석규(2007),「경북북부지역어의 음운론적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www.kci.go.kr

임석규(2013),「경음화, 남은 몇 문제」,『국어학』67, pp.167-193.
임석규(2016),「익산 지역어 조사·연구를 위한 제언」,『인문학연구』17-3, 원광대학교 인문학연구소, pp.87-114.
임석규(2017),「복수기저형과 그 패러다임의 강한 압박」,『방언학』25, 한국방언학회, pp.95-122.
최명옥(1980),『경북동해안 방언연구』, 영남대학교민족문화연구소.
최명옥(1982),『월성지역어의 음운론』, 영남대학교출판부.
최명옥(1985),「변칙동사의 음운현상: p-, s-, t- 변칙동사를 중심으로」,『국어학』14, pp.149-188.
최명옥(1990),「방언」,『국어연구 어디까지 왔나』, 동아출판사, pp.667-675.
최명옥(1993),「어간의 재구조화와 교체형의 단일화 방향」,『성곡논총』24, 성곡학술문화재단, pp.1599-1642.
Bybee,J.(2007), Frequency of Use and the Organization of Languag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www.kci.go.kr

【Abstracts】

The study of Korean phonology by expanding the survey items.

Im Seok-kyu

Through the study of sub-dialect, Korean phonology has been revealed to some extent, but there is a lot of room for complement. In this study, I would like to refine the study of Korean phonology by expanding the survey items. Other than the fact that certain phonological phenomena exist in certain areas, I want to broaden the research items to morphological and word boundaries. Targeting synchronic phonological processes, I would like to emphasize various tonal phenomena including glottalization, addition of 'n', and deletion of stem final 'a'

Key words: Korean phonology, sub-dialect, phonological process, expanding the survey item, word boundary

이 논문은 2017년 10월 9일에 투고되었으며, 2017년 10월 30일에 심사 완료되어 2017년 10월 31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

www.kci.go.kr